



원자력전문가 및 예비전문가에게 필요한 원자력 소통 어떻게 해야 할까?

원자력 소통 이렇게 하라!

- 1 YES or NO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단순화해야 한다.
- 2 막연한 공포로 인한 피해를 알려 무조건 조심이 오히려 해가 됨을 알려야 한다.
- 3 방사선의 긍정적 역할도 알려야 한다.

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
정용훈 교수



- 1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야 한다.
- 2 흔계가 아닌 쌍방향 소통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.
- 3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.

법률방송뉴스
왕성민 기자



원자력계의 건강한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!

- 1 소통은 필수적이다.
- 2 상대가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.
- 3 환경상식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.

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
정범진 교수



나부터
소통하자!

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
한은옥 교수



이 브로서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임(No. 2020M2C7A1A0107944411).